

5월 동향

- 3 특수교육기념관 개관식 참석/DU비전선포식 참석
- 10 행정제도개선위원회 참석
- 안건 : 정년연장제도/직종전환(특별채용)제도
- 11 제29차 집행부 회의 개최
- 12 한국노총 경산지부 주관 시도의원 간담회 참석
- 14 법인방문
- 직종전환(특별채용)제도 취지 및 내용 설명
- 17 제10회 학원정상화추진직원대책위원회 개최
- 18 제30차 집행부회의 개최
- 26 2010년 1/4분기 노사협의회 참석

알림터

개인지식을 DB화하고 있습니까?

<http://knowyoume.pe.kr/main/view.asp?seq=3878&crm=d>

“능력만 갖고는 조직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한가지 더 필요한 게 ‘인간력’이다. 일에 대한 태도, 열정, 조정력 등이 인간력이다. 이 두가지가 겸비돼야 조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

성균관대 비전 2020 초안 살펴보니 [매일경제, 2010.5.13]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245045>

- 기초교양 이수후 자유롭게 전공 선택
- 학문 융복합·대학 글로벌화 트렌드 반영
- 학내 일각 "기초학문 고사" 비판 목소리도

대학 융·복합 경쟁 불붙었다 [매일경제, 2010.5.21]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262178>

- 학과 벽 허문 연구·퓨전교육 새 트렌드로
 - 연합전공·자유전공학부 도입 크게 늘어
- 2015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자율학습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아이패드드를 꺼내 든다. 모든 학생은 각자 아이패드 안에 가상의 '러닝 메이트(learning mate)'를 가지고 있다.

대학 행정 관련 연수 자료보기

<http://hrd.kcue.or.kr/board/list.php?gb=pds> 무료회원가입 필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자료실
예시) 홍보/기획업무 담당자 워크숍, 대학행정업무 자동화 능력향상을 위한 Advancer+,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량강화 과정, 디지털미디어 활용 강의 콘텐츠 제작 기초 과정 등 다수 게재...

時論

“너무 바빠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지금은 고인이 되어버린 김광석이란 가수의 노래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 입대할 무렵, 그리고 군 생활을 할 즈음의 나에게 있어서 ‘이등병의 편지’는 그야말로 ‘나의 노래’였다. 그리고 서른이 되었을 무렵 ‘서른 즈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노래였다. 모든 노래가사 구절구절이 나의 이야기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그런 노래 중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된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란 곡이었다(리메이크곡이긴 하지만).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목숨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뚝탄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위로 오늘도 애드벌룬 떠 있건만
포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 숨을 내 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빈개소리에게 기절하는 남자 천둥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위로 오늘도 애드벌룬 떠 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당시에는 ‘도대체 뭐 이런 노래가사가 있을까? 도대체 저런 가사를 쓴 사람도 작사가일까? 그 작사가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가사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가사가 요즘 내 가슴에 와 닿는다.

너무 바빠서...

택시기사가가 너무 바빠서 운행을 못한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 교육 받고, 타 경쟁업체와의 비교분석 자료를 만들고, 미래지향적 택시운행 방안 보고서 작성하고, 택시운행이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 만들고, 택시 배기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연구보고서 등을 만들다가 정작 택시 운행을 못한다면... 그 택시 회사는 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 조직도 저 택시회사처럼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대학의 위기를 말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위기극복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산적한 많은 과제들 중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들, 새롭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중요성과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너무 바빠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그저 ‘눈가리고 아웅’식의, 구색 갖추기, 자기만족에만 급급한 나머지 만들어는 놓았지만 시행도 한번 안 해보고 뒤로 던져놓은 채 시간만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존의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만 있으면 너무 바빠서 버린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행적인 업무, 쓸데없는 일, 생산성 없는 일들로 바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

6월 2일(수)
동시지방선거

한 사람이
여덟 장 투표?
복잡하겠네...

넌 장짜 두 번
투표하니까
참 쉽조잉~

6월 2일, 수요일
10분이면 됩니다



Happy Birthday

이름	소속	생일
이성대	재활과 학대 학	06.01
이준희	장애학생지원팀	06.03(☉4.21)
정광국	정보화개발팀	06.05(☉4.23)
이옥레	교직팀	06.06(☉4.24)
장재림	간호학부행정실	06.06(☉4.24)
김성수	공과대행정실	06.07(☉4.25)
정충원	학생지원팀	06.07(☉4.25)
박윤미	수업학적팀	06.11
신성진	학술전자정보팀	06.21(☉5.10)
이경재	점차도서관	07.01(☉5.20)
전재경	야간강좌	06.14(☉5.03)
피정훈	시설팀	06.15(☉5.04)
황성규	입학관리팀	06.19(☉5.08)
이경용	조형예술대학	06.20(☉5.09)
최도영	사입관리팀	06.22(☉5.11)
최무환	총무팀	06.29(☉5.18)
추민지	교육혁신팀	06.30